

光州日邦



광주 남구 주민 8647명 오카리나 대합주…기네스 기록 도전



11일 광주시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남구지역 학생과 주민으로 구성된 8647명의 오카리나 대합주단이 연주를 펼치고 있다. 오카리나 음악도시 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남구청이 후워한 이날 합주에서 단원들은 아리랑, 아침이슬, 첨밀밀 등을 선보였고, '단일 악기 최대규모 합주'로 기네스북 공식 기록에 도전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평 갈등 '시민 원탁회의'로 풀자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5월단체 "복원"·전당측 "불가" 1년째 대립 '제2 별관사태' 우려 광주시·정치권·시민사회단체 협의체 구성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핵심공간의 하나 인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광주시,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 등이 원탁회의나 시민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월 단체와 문화전당이 복원촉구와 불가 입장을 내세워 1년째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안을 방치하면 광주의 발목을 잡는 난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때문이다. 최종 타결에 2년6개월 걸렸던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철거논란은 문화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구속자회·부상자회·유족회) 회원들은 지난 7일부터 6일째 문화전당 내 옛 도청별관 앞에서 천 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월 민주화운동 유적인 옛 도청본관 원형복원과 그별관 등을 5·18 기념관으로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문화전당 5개원의

전당 개관을 2년이나 늦춘 바 있다.

활용 용도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옛 전남도청 본관·별 관은 민주평화교류원(민평) 소속 건물로, 민평은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창조원, 정보원과 함께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의 하나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 상무관, 전남지방경찰청 본관, 회의실등 6개 건물로 구성돼 있다. 문화전당은이들 공간을 리모델링해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열흘간의 나비떼)을 전시하고 국제교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현재 "1980년 당시 시민군이 이용했던 상황실·방송실과 옛 도청 건물에 남아 있던 계엄군 총탄 흔적을 문화전당측이 훼손한 만큼 이를 원형 복원해야 하며, 이 공간을 5·18기념관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옛 도청본관을 원형 복원 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산확보도 어렵다는 입장이 다. 대신 상황실과 방송실을 재현하는 내용의 상징적 복원하는 방안을 5월 단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5월 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하는 등 양측이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이제는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광주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방관한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8년 옛 도청별관 존치-철거 논란의 해결을 위해 '옛 전남도 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 회'를 꾸려 총의를 모았던 적이 있다. 전문 가들은 비록 2년6개 월 걸렸지만 별관 일 부 존치, 일부 철거로 대승적인 타협점을 찾았던 데서 도청 본관 논란의 해법을 찾

'카셰어링'까지…명의도용 범죄 ▶6면

리아스식 해안-영암 해남 간척지 ▶18면

사회인 야구 '무등리그' 8강 확정 ▶20면

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문화전당 안팎에서는 일부 5월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주평화교류원을 애초 목적과 달리 문화전당에서 분리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문화전당에서 발을 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광주 문화계의 한 인사는 "광주의 미래 가 걸린 현안을 문화전당측과 5월 단체들 에게 일임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면 문화전당과 광주지역 사 회에도 득될 게 없는 만큼 광주시,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 다"고 말했다.

고 릈의.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가을 가뭄 심상찮다

전남 농작물 피해 면적 1만ha 육박 ··· 신안군 가장 심각

전남지역 농작물 가뭄피해 면적이 1 만ha에 육박하고 있다. 11월까지 가뭄 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지역에서 재배하는 벼(1385ha)·밭작물 (6665ha)·과수(1847ha) 등 농작물 가뭄 피해 면적은 9897ha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2185ha로 가장 많 았으며 이어 고흥(1980ha)·영광(1138 ha)·장흥(549ha) 등의 순이다. 벼가 고 사한 면적은 모두 456ha로, 신안(446 ha)·고흥(7ha)·강진(1ha) 등이다.

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농작물 가뭄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복구계획을 마 친 뒤 조속한 복구비 지원을 정부에 요 청하기로 했다.

이날 가뭄이 심각한 신안을 찾은 이낙 연 전남지사는 "만약 20일까지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가까운 용수원이 없는 지 역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 하며,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소득 보 전을 위해 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고, 수확이 어려운 벼는 조사료로 활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전남·북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신안 등 20개 시·군에서 농업용수 가뭄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11월까지 가뭄이 지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영란법' 전남 농수축산물 4400억 피해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분석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 란법)에 의한 전남도의 농축산물 판매가 44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남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 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의 전남 지역 피해 규모는 4195억~4436억원으 로, 전국 대비 21.7%에 달할 것으로 추 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한우 470 억원, 인삼 153억원, 배 128억원, 임산물 71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전남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을 위해 농 림축산식품국 관계관이 참석한 T/F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자들은 ▲농축산물 수요 맞춤형 다양한 상품 개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직영판매장·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계약재배 확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북 핵실험…박대통령·여야 3당 대표 회동

오늘 청와대서 안보위기 논의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도발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 대로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핵 안보 위기에 따른 초당적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합의된 '분기별 3당 대표 정례회동' 약속을 이행하는 것 과 동시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 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성사됐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전에는 박 대통령 이 추석 연휴 이후에 3당 대표와 만날 것 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 전망이었 지만 북핵 위기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만남을 성사시키는 배경이 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북한은 정권수립기념 일을 맞아 지금까지 실험한 것 중 가장 강력한 10kt(킬로톤)에 달하는 역대 최 대 규모의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풍계리 일대에서 진도 5.0의 인공지 진파를 감지해 분석했는데 핵실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10kt으로 파악했다.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당시군이 파악한 인공지진 규모는 4.8, 위력은 6kt이었다. /연합뉴스

도시농업박람회.org

www.kuae.org



제5회 대한민국 도시 생각박람회 The 5th Korea Urban Agriculture Expo

2016. **9.23.(급) ~ 9.26.(월)** 광주광역시 풍암 호수공원 일원

공식행사 I 개막식, 폐막식, 도시농부 농담(農談) 등 도시텃밭Zone I 암 예방을 위한 텃밭 등 기능성 텃밭 전시

도시농업Zone I 치유농업관, 생활원예경진대회 작품 전시,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작품 전시 등 치유체험Zone I 소리치유, 흙치유, 원예치유, 음식치유, 씨앗치유, 치유텃밭 전시 및 체험

농촌문화체험Zone I 쌀의 재배과정, 지게지기 등 농사놀이체험, 도시농부 포토존 등

제5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문의처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60(임암동) 3층 제5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 사무국 TEL: 062)672-0922 FAX: 062)674-0922

